

부석사의 석단 고찰

- 『화엄경』 · 「십지품」 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홍재동

((유)건축사사무소 홍원)

임충신

(울산대학교 건축대학 명예교수)

주제어 : 화엄경, 십지품, 부석사, 석단

1. 머리말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불교는 한국건축사에 있어 새로운 건축양식의 창작 추구와 공간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불교의 전래 이후 그 전성기였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사찰의 공간구성은 한국전통건축을 이해하려는 여러 연구에서 불교교리와 사상에 연유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교리와 사상 등에 나타난 건축 규범은 명확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통일적이고 구체적인 건축적 규범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찰의 건축적 원형은 존재해 왔으며, 그것은 불교적 세계관을 표현하고 교리를 구현하며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¹⁾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영 당시 전각들의 배치와 형상을 가장 근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의 부족과 교리와 사상의 이해력 부족으로 그 가능성

은 추론하여 짐작할 정도에 머물고 있다.

오래 전부터 이들 교리와 사상, 특히 화엄사상의 이해를 위한 연구는 이웃 일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최근 국내의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교리와 사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사찰의 공간구성 실마리를 풀어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추론 수준에서 벗어나 더욱 근접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전통사찰 중 화엄사찰의 외부 공간 구성이 화엄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화엄경』²⁾의 각 품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는 구조체계를 가졌으며, 그 수행체계의 핵심에 해당되는 십지의 단계를 공간구성 요소로 삼아 건축공간이 구성되었음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1) Dietrich Seckel/백승길 역, 불교미술, 열화당, 1985, 20~21쪽

2) 鎌田茂雄 지음/장휘옥 옮김, 화엄경 이야기, 장승, 1996. 10~11쪽, 『화엄경』은 석가모니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成道한 후 그 두 번째 되는 7일에 금강보좌를 떠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海印三昧에 든 채, 문수·보현과 같은 상근기의 보살들을 위해 스스로 깨달은 내용을 설한 것으로, 그 뼈대는 부처의 세계와 보살이 그곳에 이르기 위해 닦아야 하는 수행과정을 나타낸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그러므로 이를 밝히기 위해 대지의 지형적인 특성들이 외부공간의 구성에 강하게 도입되고 있고, 또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오래 전부터 학계에서 마치 불교교리 및 사상적인 배경을 기초로 조영되었다는 사실을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부석사의 석단(石壇)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이를 위해서는 당시의 공간구성 상태를 가장 근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건축적·문헌적 고증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실증적 자료로 남아있는 『화엄경』을 바탕으로,

1) 이미 다른 학문분야에서 연구된 『화엄경』 구조체계³⁾의 분석을 정리함으로써, ㉠ 『화엄경』의 각 품 사이의 관계는 이들 각 품에 내포된 수행체계와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여 다루고 있고, ㉡ 이들 각 품 중 수행체계의 핵심에 해당되는 「십지품」은 그 속에 『화엄경』 구조의 개략적인 줄거리를 담고 있어 서로 대응됨으로, 『화엄경』의 전체 내용을 표현할 수 있음을 밝힌다.

2) 연구대상인 부석사의 각 석단 터에, ㉢ 검계의 『교남명승첩』에 그려진 스케치, ㉣ 18세기 초엽 『순흥읍지』의 기록, ㉤ 불교적 의미의 구분법 등을 적용할 때 서로 대응되는 지를 검토한 다음, 이들 검토 내용과 선행 연구의 내용 및 『화엄경』·「십지품」의 해석 내용을 외부공간에 적용시켰을 때 서로 같은 점이나 대응점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3) 부석사의 외부공간을 나누고 있는 석단

3) 李孝杰, 화엄경의 성립배경과 구조체계, 고려대 박론, 1991. 74쪽에서 “각 품은 마치 기본 주제를 다르게 거듭 설명하는 하나의 사이클 형식을 취 한다”. 반면에 鎌田茂雄 지음/장휘옥 옮김, 화엄경 이야기, 장승, 1996. 9쪽에는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교설”로 설명되고 있다.

들은 『화엄경』의 내용을 설한 장소이자 십지의 터를 상징하는 구성요소임을 밝힌다.

2. 『화엄경』의 구조체계

2-1. 구조체계의 이해를 위한 준비

(1) 『화엄경』의 구성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60·80화엄』⁴⁾ 모두는 그 품의 수만 다를 뿐 구조나 순서·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다.⁵⁾

또 이들 외에 여러 종류의 《단행별경》이 있다. 그런데 이것들은 『화엄경』 내용 중 중요한 장과 품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은 이 사실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가 접하는 『화엄경』은 독자적으로 간행되어 유포되었던 《단행별경》들이 모여져 어떤 내용을 줄거리로 편집하고 이를 발전시킨 것이라 추정한다.⁶⁾

(2) 『화엄경』의 구성형식과 주제의 초점

1) 구성형식

『화엄경』 내용을 눈여겨 살펴보면, ㉦ 설법의 주인공인 보살들이 설법 장소마다 바뀌어 등장하거나, ㉧ 설법 무대가 지상과 천상을 오가며 바뀌기도 하고, ㉨ 그에 비례하여 설법 회수도 나누어지는 형식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화엄경』 전체의 구성요소인 작은 주제를 다시 몇 개의 단계로 묶어 보면, 이들

4) 이들 두 가지 『화엄경』 중 구경인 『60화엄』은 7처 8회 34품으로, 신경인 『80화엄』은 『60화엄』에 비해 설법 장소가 하나 더 많은 7처 9회, 품의 수도 다섯 개가 늘어난 39품으로 구성되었다.

5) 중국의 화엄교학에서는 둘 다 같이 텍스트로 삼고 있다. 특히 법장의 화엄교학은 『60화엄』에서 구성된 것이고, 정관의 화엄교학은 『80화엄』에 기초하여 조직되었다.

6) 이러한 추정은 이미 『화엄경』과 여러 《단행별경》과의 비교 및 번역시기의 정확한 조사, 또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논사의 제세연대, 사상경향 등에 의해 확정되었다.

작은 주제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기본 주제를 마치 다른 방법으로 거듭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의 사이클 형식을 취한다.

2) 주제의 초점

① 조직의 기초자료

『화엄경』 조직상의 일반 원칙을 통하여 전반적 구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이해하려면 그 출발점을 《원시화엄경》에 둬야 바람직하다. 따라서 통시적인 검토로 『화엄경』의 공간을 이룬 구도를 ‘이효걸의 연구’를 통해 추적해 보면, ㉔ 《도사경》과 이것에 상응하는 (7) 여래명호품에 나오는 일군의 십수적 용어들, ㉕ 《도사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천계의 묘사 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9) 여래광명각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계층적인 천계세계 나열부분과, ㉖ 《도사경》과 (7) 여래명호품·(9) 여래광명각품에서 서술의 뼈대로 자리매김한 십수체계, ㉗ (15) 십주품과 이에 해당하는 《단행별경》에 나오는 열 가지의 계위 및 각 계위마다 다시 열 가지로 세분된 구체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체계 등 몇 개의 기초적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

② 구성의 틀

《원시화엄경》으로부터 찾아낸 이 네 가지 기초적인 자료를 통해 『화엄경』의 전체적인 구도는 다음과 같이 몇 개의 큰 틀로 해석이 가능해 진다.⁷⁾

먼저 십주품을 통해서 수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행위계열들 상호간에는 단계적인 서열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⁸⁾ 이러한 필요성은

7) 왜냐하면, 《보살본업경》을 계기로 불타와의 관계를 끌어들이면서 보살도를 체계화하려는 『화엄경』 조직의 욕구를 이 기초적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8) 그런데 이 십주는 《도사경》 속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와 상대되는 행위계열은 「여래명호품」에서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필요성은

계층적인 천계세계의 공간구조를 통해 상상적 시각으로 입체화되면서 형상화되기도 하고, 또 십수적 원칙을 통해 검정되거나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80화엄경』으로 다시 편집

『60화엄』을 『80화엄』으로 다시 편집할 당시 증보된 부분은 (2)여래현상, (3)보현삼매, (4)세계성취, (5)화장세계, (27)십정의 다섯 품이다. 더욱이 이들 품 중에서 (2)·(3)·(4)·(5) 네 품은 『60화엄』의 〈2〉노사나품을 증장시킨 것으로⁹⁾ 『80화엄』으로 편집할 당시 전체 구도 중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새롭게 보충·보강한 것이며,¹⁰⁾ (27)십정품은 이미 《단행별경》으로 유행하고 있었는데, 『80화엄』으로 다시 편집할 당시 『화엄경』 조직을 조화적이며 논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비로소 보완하였다¹¹⁾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전체 구도 중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 특히 설법장소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선행 연구자들은 이를 용인할 수 있는 구성이라 여기고 있다.¹²⁾

2-2. 「화엄경」의 구조체계

(1) 구조체계의 정리방법

이미 「십주품」 자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9) 伊藤瑞韻은 高岐直道 지음/정순일 옮김, 앞의 책, 76쪽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단행별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엄경』이 편집될 당시에 《원시화엄경》중 《도사경》을 모델로 하여 성립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10) 李孝杰, 앞의 논문, 72~73쪽

11) 李孝杰, 앞의 논문, 79쪽에서, 이로 인해 설법의 장소가 문제 된다. 「십정품」에서는 설법의 장소로 ‘보광명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26)십주품의 ‘타화자재천궁’과는 다르다. 그러나 (28)십통품부터 (37)여래출현품까지는 說處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앞 說處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 高岐直道 지음/정순일 옮김, 앞의 책, 65쪽, 龜川教信 《화엄학》의 견해라 밝히고 있다.

24 논문

『화엄경』의 구조체계를 이해하는 일은 건축공간구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지만 비교적 『80화엄』에 비중을 더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객관적 관점에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60화엄』에서 전체 구도상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과 설법장소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한 점 등이 그 나름의 독자적 체계와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엄경』의 구성을 다섯 단계로 구분한 ‘이효걸의 연구’를 바탕으로 일본학자인 이시이(石井教道)·야마다(山田龍城)·이또오(伊藤瑞叡)의 연구¹³⁾ 중에서 서로 해석을 같이하는 내용들을 간추려 정리하고자 한다.

(2) 구조체계 [표 1]

1) (1)세주묘엄품부터 (6)비로자나품까지는 전체 구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론부분이다.

(1)부터 (6)까지는 결과적으로 드러날 화엄세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고도의 상징성과 상상력을 마음껏 구사하거나 다양한 비유방식을 동원하여 서술되어 있다.¹⁴⁾ 때문에 화엄경 전체의 구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론 부분에 해당 된다.¹⁵⁾

2) (7)여래명호품부터 (26)십지품까지는 천계의 공간구조를 통한 기본적인 수행체계이다.

(7)부터 (26)까지는 화엄경 조직의 핵심인 기본적인 수행과정을 《보살본업경》에서 유래

된 천계의 공간구조에다 십수적 수행집합들의 구도를 가미하여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유기적 구성체계로 서열화 하였다.¹⁶⁾

그 결과 이들 수행집합들이 천계구조와 상응해서 체계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은 ‘십주’·‘십행’·‘십회향’·‘십지’ 네 가지뿐이며, 이들 천계의 공간구조에 대응하는 수행집합들의 체계는 ‘십주와 도리천’·‘십행과 아미천’·‘십회향과 도솔천’·‘십지와 타화자재천’으로 [표 2] 처럼 정리된다. 따라서 이들 수행집합 중 ‘십지품’이 체계적 수행의 정점에,¹⁷⁾ 타화자재천이 육계의 정점이 된다.¹⁸⁾

게다가 내부구조 중 (11)정행·(15)십주·(21)십행·(25)십회향·(26)십지는 각 수행집합 속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본론에 해당된다.¹⁹⁾

16) 그런데, 이 중층적 복합관계는 일순간의 수행적 행위 하나에서 전체 해탈의 삶을 직접 포섭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체계는 마치 생명체의 신경조직이 일정한 다발을 이루어 그 나름의 독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른 신경다발과도 유기적 관계를 갖는 구조로 이해된다. 일본 학자인 伊藤瑞叡은 高岐直道 지음/정순일 옮김, 앞의 책, 191~236쪽에서,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논리적 순서도에 따르는 계통발생적인 분산체계가 아니라 『화엄경』 스스로가 각 품의 비유를 통해 암시 하는 것처럼 일종의 그물구조체계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17) 伊藤瑞叡은 高岐直道 지음/정순일 옮김, 앞의 책, 82쪽에서 「십지품」은 『화엄경』 성립 이전부터 《단행별경》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서와 결의 내용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십지품」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화엄경』 전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한다.

18) 육계 다음에 오는 색계와 무색계가 ⑥십지품 이후의 것과 서로 연관되지 않는 것은 육계가 인도의 전통적 천계개념인데 반하여 색계와 무색계는 사실상 선경 체험을 구상화하여 확대 개편한 불교 독자의 천계구조로 화엄경과 같은 초기 대승불교시기에 아직 그러한 구조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伊藤瑞叡은 高岐直道 지음/정순일 옮김, 앞의 책, 79~82쪽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반해 (7)·(9)나, (13)·(14) 및 (19)·(20), (23)·(24)은 불타와의 관계가 보완된 부분으로 서론에 해당된다. 또 (8)·(10)이나 (16)·(17)은 반야적 대승이론을 차용하여 대승적 교리나 수행방법을 거론함으로써 이론적 반성을

13) 高岐直道 지음/정순일 옮김, 앞의 책, 73~90쪽

14) 伊藤瑞叡은 高岐直道 지음/정순일 옮김, 앞의 책, 76쪽에서 이러한 해석은 石井教道の 견해라 밝히고 있다.

15) 이러한 입장은 중국화엄교학의 대성자인 법장뿐만 아니라 일본의 많은 학자들, 특히 山田龍城이 긍정하고 있다. 더욱이 법장은 『화엄경탐현기』에서 『화엄경』의 가르침을 서술한 이유가 서론으로 존립해야 한다는 것을 《지론》과 《법화경》의 예를 들어 정당화하고 있다. 더욱이 玉城康四郎는 伊藤瑞叡은 高岐直道 지음/정순일 옮김, 앞의 책, 93쪽에서 『60화엄』의 〈노사나불품〉에서 묘사되는 세계가 전체의 총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컨대 ②십주·③십행·④십회향·⑥십지의 제회는 보살의 수행도를 질서화시켜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그 중에서도 ②십주·③십행·④십회향의 각 회는 말하는 차례와 장과 품의 배열이 ②십주의 구성과 유사하다. 그러나 「십지품」만은 앞과 뒤에 서와 결과 같은 제품을 갖고 있지 않아 매우 독립적인데, 이러한 사실은 ①정행에서 ④십회향까지가 ⑥십지의 서론적 형식이라는 점과, ⑥십지 보살행 앞 제회의 「십신」 내지는 「십회향」과 동격이 아니라 오히려 정점에 위치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다음 (27)부터 (37)까지는 (26)십지품의 결론이라 판단할 수 있다.²⁰⁾

3) (27)십정품부터 (37)여래출현품까지는 수행체계를 다시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27)부터 (37)까지는 (26)십지품 가운데 최후의 보살지위와 서로 연결 지워 「십지품」의 정점과 동일한 수위에 위치시켜 놓고, 「십지품」 이후의 모든 품들을 한데 묶어 (26)십지품까지 진행된 수행체계와 다시 한 번 대비시키고 있어서 (7)여래명호품에서부터 (26)십지품까지를 재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¹⁾ 즉 그 앞에서 전개된 수행체계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한편 화엄보살도에 필수적인 기본적 요건들을 압축한 다음 재등장시켜 여래출현이라는 극적 상황으로 매듭짓고 있다.²²⁾ 따라서 화엄경

하는 부분이며, (12)·(18)·(22)은 각 영역에서 이야기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망라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하거나, 그 영역에서 미비하거나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鎌田茂雄 지음/장휘옥역, 앞의 책, 195쪽에는 도솔천회의 처음 두 품은 서문에 해당되고, 세 번째 품은 본문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20) 伊藤瑞叡, 高岐直道 지음/정순일 옮김, 앞의 책, 82~83쪽

21) 鎌田茂雄 지음/장휘옥 옮김, 앞의 책, 241쪽에서 「십정품」 이하의 다섯 품은 「십지」에 대한 보충설명임을 밝히고 있다.

22) 이효걸, 앞 논문, 101쪽에서 여래의 출현이란 곧 불타나 불타세계가 보살이란 주제에 의해 마침내 드러나

[표 1] 『60·80화엄』 내용

60화엄 品數·名	80화엄 품수·품명	普薩名
〈1〉 세간정안품	(1)世主妙嚴品	普賢
	〈2〉 노사나품	
(3)普賢三昧品		
(4)世界成就品		
(5)華藏世界品		
(6)毘盧舍那品		
〈3〉 여래명호품	(7)如來名號品	文殊
	(8)四聖稱品	
	(9)光明各品	
	(10)菩薩問明品	
	(11)淨光品	
	(12)賢首品	
〈22〉 십지품	(13)昇須彌山頂品	法慧
	(14)須彌頂上偈讚品	
	(15)十住品	
	(16)梵行品	
	(17)初發心功德品	功德林
	(18)明法品	
	(19)昇夜摩天宮品	
	(20)夜摩宮中偈讚品	
〈23〉 십명품	(21)十行品	金剛幢
	(22)十無盡藏品	
	(23)昇兜率天宮品	金剛藏
	(24)兜率宮中偈讚品	
	(25)十回向品	
	(26)十地品	
〈34〉 입법계품	(27)十定品	普賢
	(28)十通品	
	(29)十忍品	
	(30)阿僧祇品	心王
	(31)如來壽量品	
	(32)諸菩薩住處品	
	(33)佛不思議法品	青蓮華
	(34)如來十身相海品	普賢
	(35)如來隨好光明功德品	
	(36)普賢行品	普賢
(37)如來出現品		
(38)離世間品		
(39)入法界品	文殊 普賢	

※ 다른 학문분야와 여러 선행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표 2]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의 계위화

구분	수행 집합들	천계 공간	내부구조	비고
欲界六天領域	① 淨行	四天王天 普光明殿	서 (7)여래명호	「정행」은 생활 속의 불법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²³⁾ 주로 일상적 수행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체계적 수행이라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에 앞서는 기초적 훈련행위라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천계의 공간구조에서 제외된다. 곧 願行이다.
			(8)사제	
			(9)여래광명각	
			(10)보살명난	
	본 (11)정행			
	결 (12)현수보살			
	② 十住	33 천 忉 利 天	서 (13)승수미산정	
			(14)수미산정계찬	
			본 (15)십주	
			결 (16)범행	
③ 十行	夜 摩 天	서 (19)승야마천궁	「十藏」을 수행영역으로 포함 시켰다.	
		(20)야마천궁계찬		
		본 (21)십행		
결 (22)십무진장				
④ 十廻向	도 率 天	서 (23)승도솔천궁		
		(24)도솔천궁계찬		
본 (25)십회향				
⑤ 十藏	化樂天		「十藏」은 「十無盡藏」으로 「십행」의 수행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십행」속으로 편입되었다. ²⁴⁾	
⑥ 十地	他化 自在 天	서 (26)십지		
		본		
德性領域	⑦ 十願			㉔ 「십원」은 「원행」이므로 「정행」의 수행집합에 용화되어 수행을 더욱 고급화시킨다.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여전히 「십지」 다음에 위치된다. 그러므로 체계적 수행과정의 영역에 들기보다는 그 앞에서 실행한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덕성들을 영역화하고 십수체계에 맞도록 표현되었을 뿐이다. 더욱이 육계육천의 수행집합들처럼 체계적으로 구조화 되어서 어떤 계층적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행결과로서 나타나는 이러한 덕성들은 대승적 관점, 특히 화엄적 관점에서는 수행과정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수행의 덕목이 되기도 한다. ²⁵⁾
			⑧ 十定	여러 가지 삼매를 주제로 한다.
			⑨ 十通	불타의神通력을 주제로 한다.
			⑩ 十頂	頂은 灌頂 또는 인의 의미로 무생법인 등을 주제로 한다.

게 되는 보살도의 궁극적인 목표로, 이 극적인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장황하게 전개해온 지루한 노정을 압축하여 불타출현이라는 극적인 상황에 긴밀히 대치시키는 한편, -중략- 그런데, 「여래출현품」은 《단행별경》으로 존재하고 있긴 했지만

『화엄경』 조직의 전반적 체계상 십지품 가운데 최후의 보살지위와 서로 연결 지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23) 鎌田茂雄 지음/장휘옥 옮김, 앞의 책, 110쪽

24) 이효결은 앞 논문 96쪽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 점

을 조직함에 있어 창조성이 가장 많이 드러날 뿐 아니라 전반적 구도에 대한 통찰력이 차분하게 배어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판단해 볼 때 (27)에서부터 (37)까지의 영역은 (7)에서부터 (26)까지를 새롭게 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그 구성 내용으로 보아 (26)십지품의 결론으로 판단할 수 있고,²⁶⁾ 또 이것을 하나로 묶어보면 (38)이세간품에 합리적으로 대응되기도 한다.²⁷⁾

4) (38)이세간품은 상향적 종합의 새로운 구성이다.

『화엄경』 조직 전체의 수행체계는 「십지품」까지의 체계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구성한 「십지품」 이후의 체계로 이원화 되어 있다. 「십지품」까지의 영역 모두가 창작인 것에 반해 「이세간품」은 《단행별경》으로 존재했던 것이므로 앞의 영역보다 뒤의 영역에서 『화엄경』의 편집의도와 화엄사상의 총체적 윤곽이 훨씬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세간품」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단행별경》을 『화엄경』으로 편집할 당시의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동일한 사상계열 중 상대적으로 세련된

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십장의 ‘藏’이 말 그대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덕성을 갈무리하는 내면적인 성취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십지」의 수행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바로 「십회향」이라 하여 「십회향」과 「십지」를 직접적인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5) 왜냐하면 대승불교운동에서 이타행은 성도한 불타의 행위이자 동시에 불타가 되기 위한 수행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26) 伊藤瑞叡, 高岐直道 지음/정순일 옮김, 앞의 책, 83쪽

27) 高岐直道 지음/정순일 옮김, 앞의 책, 67~69에서 범장은 「여래명호품」에서 「보왕여래성기품」까지를 修因契果生解分이라 하여 한 묶음으로 보면서도 다시 「여래명호품」에서 「불소상광명공덕품」까지를 修生因果라 하고 「보현보살행품」품과 「보왕여래성기품」를 修顯因果라 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법을 사용해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입법계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단행별경》을 근거로 방대하게 조직한 보살의 수행체계를 총체적으로 망라한 다음 서로 대응되게 배치한 것은 다른 《단행별경》과 비교해서 상당히 중요시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²⁸⁾ 게다가 다른 《단행별경》처럼 수행체계의 완결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수행체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5) (39)입법계품은 보살도를 극화시킨 것이다.

구조적으로 볼 때 또 하나의 『화엄경』에 해당하는 「입법계품」은 (1)에서부터 (38)로 이루어진 방대한 보살의 수행체계 전체를 아주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 드라마틱하게 극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²⁹⁾ 그러므로 「입법계품」에 사용된 주제는 (1)에서부터 (38)에 내포된 수행체계와 다를 바 없이 동일한 것을 반복하여 다루고 있고,³⁰⁾ 형식적 구조 측면에서 뿐 아니라 상징하는 의미의 측면에서도 모든 품들을 망라한 것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1)에서부터 (38)에 내포된 체계적 수행과 뚜렷이 대비될 수 있는 점은 십주 -> 십행 -> 십회향 -> 십지로 이행하는 산뜻하게 짜인 단계적 수행을 대신하여 여러 선지식을 등장시키고,

28) 왜냐하면, 「이세간품」의 설명방식이 십신·십주·십행·십회향·십지와 십지 이후의 지위라고 여겨지는 단계까지 설정한 다음 각 영역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되게 구성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확실히 보살도를 총체적으로 망라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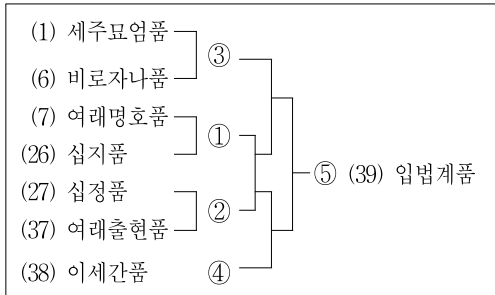
29) 이종익, 앞 논문, 13쪽에서 “「입법계품」은 『40화엄』인 〈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으로서 「이세간품」까지의 38품을 총괄하여 이 한 개의 품으로 이론적 체계를 세운 것”이라 논하고 있다.

30) 이것 이외에도 삼매를 강조하고 불타의 힘을 설법보다 앞서 배치시킨 점과 십법수의 설명방식을 역시 전형으로 채택한 점, 끊임없는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그때마다의 수행의 得果는 반드시 타인에게 회향시켜야 비로소 수행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하는 점, 하나 속에 一切가, 一切 속에 하나가 있다는 화엄적 세계관이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 등에서 다른 여러 품에서 나타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행을 단계적으로 진행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³¹⁾

지금까지 성립과정의 측면과 의미론적 측면에서 병행 추적한 『화엄경』의 구조체계는 [표 3] 과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³²⁾

[표 3] 성립순서에 따른 총체적 구조체계



(3) 구조체계의 핵심

앞서 [표 3]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³³⁾,

1) 『화엄경』의 구조체계 핵심은 천계의 공간구조에다 십수적 수행집합들의 구도를 가미한 수행과정을 기본으로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유기적 구성체계로 서열화 한 ①에 있다. 게다가 ②·③·④에서는 ①의 수행체계와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여 다루거나 새롭게 정리하는 등 하나의 사이클 형식을 취한다. 다시 말해 『화엄경』은 불법을 설하는 다른 경전과는 달리 보살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살행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십지품」의 내용과 같은 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³⁴⁾

31) 그러므로 『화엄경』 전체 조직의 이해를 위해 수행의 체계와 여러 선지식과의 관련성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앞의 단계적 수행체계를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52선지식의 수에 맞추어 52계위의 화엄보살도로 정형화시킬 경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이 표에서 ①~⑤는 성립 순서를, 선분은 상호간의 의미론적인 관계 구조를 나타낸다. 그러나 성립 순서도 반드시 경전사학적인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의미론적 체계를 반영한 순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시된 번호순서와 일치하는 순서라고는 할 수 없다.

33) 이효걸, 앞의 논문, 117~121쪽

34) 高岐直道 지음 / 정순일 옮김, 앞의 책, 85~86쪽 및

이러한 판단은 「십지품」 속에 『화엄경』 구조의 대략적인 줄거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화엄경』 그 자체의 구조가 「십지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따라서 형식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상징적 의미의 측면에서도 모든 품들은 서로 대응 된다.

2) 또 이들 관계를 등식으로 표현하면,

$$\textcircled{㉗} \rightarrow \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

$$\textcircled{㉘} \rightarrow \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㉘ \rightarrow ① = ②라는 정식이 성립되는데, 이를 통해 『화엄경』은 적어도 3차원의 중층적 구조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다시 이 3차원의 구조를 설법을 행한 장소와 관련시켜보면,

①과 ②는 욕계육천의 천계세계에, ③과 ④ 및 ⑤는 지상세계에 해당된다. 그러나 얼핏 보면 2차원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③의 지상세계에서 출발하여 계층적 천계세계인 ①과 ②를 거쳐 다시 ④의 지상세계로 내려오는 구성을 하고 있어서 출발점과 도착점으로서의 지상세계는 세계 그 자체만으로 해석할 경우는 동일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수행의 주체인 보살에게는 다른 의미의 지상세계로 인식되기 때문에 ⑤가 의미하는 지상은 지상과 천상을 포함한 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종익, 앞 논문, 18쪽에는 고려 때 「均如」는 그가 저술한 「법계도기」에서 ‘화엄일승’은 ‘법화일승’, ‘심밀일승’을 가리어낸 것이며 이 「일승법계도」의 시를 합한 일인(一印)은 『화엄경』 및 「십지경」에 의하여 圓教宗要를 표한 것이니 『화엄경』과 「십지론」이 所依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3. 「십지품」과 부석사 석단과의 관계분석

3-1. 분석방법

부석사의 진로축을 따라 쌓여진 석단과 석단 위에 놓인 당우³⁵⁾의 현황을 조사한 다음 이들 현황에다, ① 현종 대(1849년)에 기록된 『순흥읍지』 ‘불우부석사조의 내용과 검재의’ 교남명승첩 중 부석사의 구도를 분석하여 적용하거나, ② 불교적 의미의 구분법에 의해 각 공간을 속계·성계와 과정공간·수행공간·예배공간으로 나누어 적용할 때 서로 대응되는지를 검토한 다음, ③ 이들 검토 내용과 선행 연구의 내용을 각 석단 터에 『화엄경』·「십지품」의 해석내용과 함께 적용시켰을 때 차이점이나 부족분이 없이 서로 대응되는지를 분석한다.

3-2. 석단·석단관련 당우의 현황

(1) 계단·석단의 현황

부석사는 현재 천왕문으로부터 무량수전에 이르기까지의 외부공간을 여러 유형의 석단으로 터를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이들 석단은 크게, ㉠ 대지를 가로질러 높게 쌓은 것과 알게 쌓은 것, ㉡ ‘ㄷ’자나 ‘ㄴ’자로 돌출되게 쌓은 것 등이 있다. ㉢ 또 이것들은 진입 축에 직각으로 쌓은 것과 각도를 달리하는 것 등으로 구별된다.

또 이들 석단을 쌓은 시기는 그 기본구조가 원원사나 망원사 등과 유사하기 때문에 9세기 후반 경문왕 대(861~874년)로 추정하기도 하고, 원융국사(964~1053년)가 이곳 주지를 맡으면서 무량수전을 중창하는 등 전성기를 맞은 사실들을 들어 고려 초기로 추정하기도 한다.³⁶⁾

35) 이들 요소들이 공간을 결정하는 결정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십지품」에서 보이는 보살수행단계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것처럼 판단되기 때문이다.

36) 김봉렬, 부석사, 이상건축, 부산, 1995, 86~87쪽

1) 첫 번째 석단은 약 16°정도의 경사면 위에 ‘ㄷ’자로 돌출되게 쌓았다. 석단의 높이는 2.80m지만 끝자락에 소매돌이 없는 사다리꼴 내민 계단(아래 폭 2.8m, 위 폭 2.5m, 경사각 32.5°)이 놓여 있어서 그 앞에서 보면 훨씬 높게 지각된다.

이 터 위에는 천왕문이 놓였는데, 이곳은 원래 일주문이 있었던 자리로 사찰영역의 시작점이다.³⁷⁾

2) 천왕문을 지나면서 경사면이 시작된다. 이 경사면과 천왕문터가 서로 만나는 곳에는 두 번째의 석단³⁸⁾이 ‘—’자를 이루며 높이도 1.1m로 알게 쌓여 있다. 이곳으로부터 24°인 경사면은 세 번째 석단까지 계속되는데, 바닥은 축선을 따라 6m 폭으로 표면이 거친 포석을 깔았다. 포석을 제외한 바깥 양측은 식수대가 형성되어 있다.

3) 세 번째 석단은 대지를 가로질러 높게 쌓은 네 번째 석단자락에서 축을 왼쪽으로 2°정도 기울인 다음 ‘ㄷ’자로 내밀어 쌓아 경사면에 사뿐히 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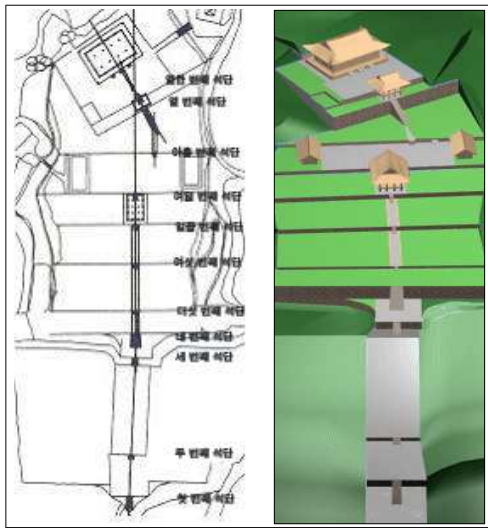
석단의 높이는 2.4m지만 그 끝자락에는 소매돌이 없는 사다리꼴 내민 계단(아래 폭 2.49m, 위 폭 2.18m, 경사각 39°)이 놓여 있어서 그 앞에서 보면 훨씬 높게 지각된다.

4) 네 번째 석단은 높이가 4.2m로 대지를 가로질러 쌓아 진행 방향 쪽으로의 시선을 차단한다. 따라서 관찰자에게는 하늘을 배경으로 한 ‘그림’으로 지각된다. 석단의 끝자락에는 아

37) 순흥읍지의 기록과 문화재관리국의 부석사보수정화준공보고서에 의하면 일주문의 위치임에 틀림없다.

38) 문화재관리국, 영주부석사보수정화준공보고서, 79쪽에 보면, 이 석단은 천왕문의 신축을 위한 조사 때 발굴된 것으로 그 쌓기 수법이 큰 석단과 같다고 했지만 전면의 노면을 절토한 다음 석단 앞에 당시까지 없던 계단을 자연석을 사용하여 신설케 한 것을 보면, 당초부터 시각적으로 지각하기 위한 석단이 아니라 땅속에 숨겨져 있으면서 경사면의 박석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석단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래 폭 4.26m, 위 폭 3.67m, 경사각 39.5°인 소매들이 없는 사다리꼴 내민 계단이 놓여 있어서 세 번째 석단의 계단과 시각적인 축소 등의 영향으로 인해 마치 하나의 계단으로 지각되며 진행방향으로의 연속성도 증가시킨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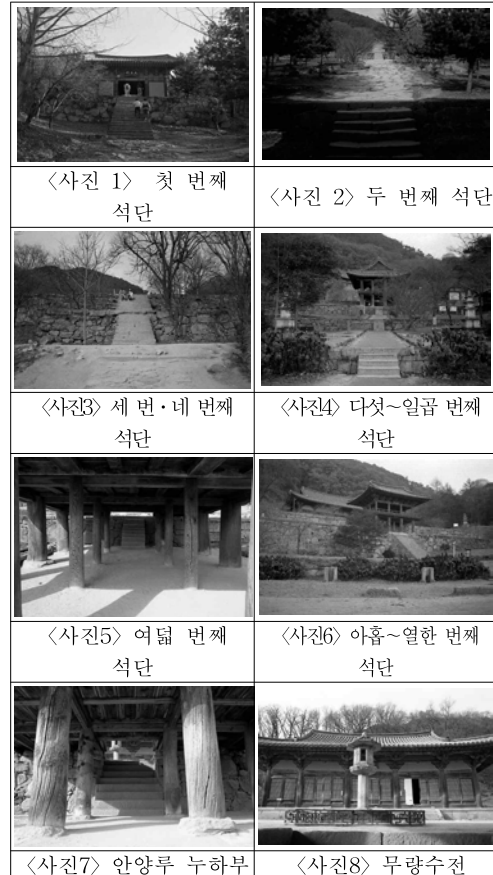


〈그림 1〉 1960년대 부석사 배치도 및 투상도
(자료 : 연구자 작성)

5) 범종각이 놓인 일곱 번째 석단까지와 범종각을 지난 여덟 번째 석단은 대지를 가로질러 쌓았다. 이들 각 석단들의 높이는 다섯 번째 석단이 0.7m, 여섯 번째 석단이 1.5m, 일곱 번째 석단이 1.7m로 점점 높아진다. 게다가 이들 석단에 의해 만들어진 터도 바닥면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시각적 상승효과를 가져와 마치 하나의 영역처럼 한 눈에 지각된다. 이로 인해 관찰자는 시각적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더욱이 일곱 번째 석단 터에 조영된 범종각은 그 진입 방향이 한국전통 건축의 보편성을 벗어나 측면으로 진입하게끔 이례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지붕 또한 진입방향은 팔각지붕인데 반해

그 반대편은 맞배지붕으로 구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범종각의 아래에서는 공간 한정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깊이효과가 가중된다.⁴⁰⁾



〈사진 1〉 각 석단과 당우의 현황

6) 여덟 번째 석단은 그 높이가 2.0m로 범종각의 마루를 따낸 ‘ㄷ’자 부분과 수평그림틀을 만들어 진행방향의 경관을 담아 볼 수 있다. 더욱이 수평그림틀 속에 담긴 이들 경관은 투시도적으로 지각되는데, 이러한 수법은 마치 지금까지 전개된 영역과 그 성격이 서로 다른

40) 홍제동, 앞 논문, 74쪽. 범종루의 이례적인 배치·낮은 루 마루틀·바닥면의 상승·기둥 간살이의 좁힘과 내부기둥 단면의 축소·계단·그림자·축의 굴절·수평그림틀 등의 요소를 공간구성 요소로 응용하여 생겨난 효과라고 설명한다.

39) 김봉렬, 앞의 책, 90~91쪽

새로운 영역으로 공간이 전환됨을 암시하는 것과 같다. 석단의 끝자락에는 아래 폭과 위 폭이 1.3m로 같고 경사각이 33.7°인 내민 계단이 범종루 아래로 돌출되어 놓였다. 범종각의 축과 아홉 번째 석단이 만나는 이 터 위에는 패불대가 있고, 또 석등과 배례석의 흔적이 있다.

7) 아홉 번째의 석단은 그 높이가 1.2m로 관찰자의 시점보다 낮아 여덟 번째 석단 터와 같은 영역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석단에서는 지금까지의 진입축이 오른쪽으로 10m정도 옮겨졌고, 또 대지의 형상도 아홉 번째 석단의 기우러짐에 의해 서쪽으로 수렴되는 사다리꼴을 이룬다.

8) 열 번째의 석단은 범종각 아래까지의 진입축보다 28° 기우러지게 쌓았다. 계다가 높이도 4.4m로 높게 쌓고, 또 두 면을 동시에 볼 수 있게 'L'자형으로 돌출되게 쌓아 마치 내민 무대를 보는 것과 같다. 더욱이 이 석단보다 뒤쪽에 놓여 있는 열한 번째 석단의 부속분을 보완하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고, 또 사찰영역 내에 있는 석단 중에서 높이가 가장 높기 때문에 관찰자의 시점이 석단 아래에 다다르면 그림인 무량수전은 보이지 않고 배경인 하늘만 지각된다. 이러한 지각현상은 이 석단 터 위에 안양문이 놓여 있어서 더욱 심화된다. 이 석단의 끝자락에는 아래 폭이 3.15m, 위 폭 2.63m, 경사각 35°인 사다리꼴 내민 계단이 놓여 있다.

9) 열한 번째 석단은 안양문의 수평 공간한정 요소인 누마루의 높이보다 다소 낮다. 하지만 높이가 2.3m로 관찰자의 시점보다 높고 또 석단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앞쪽에서의 시선이 차단된다. 이 터에는 무량수전이 석단과 2°정도 기우러져 놓여 있어서 그 앞에 서쪽으로 수렴되는 사다리꼴의 마당을 가졌다. 앞마당에는 무량수전의 중심축에서 왼편으로 밀려

난 것처럼 보이는 석등이 놓여 있다.

석단의 끝자락에는 아래 폭 2.12m, 위 폭 1.94m, 경사각 43°인 계단이 반쯤은 마당 쪽에 끼워 들고 나머지 반쯤은 안양루 아래로 내밀기도 한 채 놓여 있다.

(2) 당우의 현황

또 석단에 의해 생겨난 터 위에는 진로축을 따라 천왕문, 범종각, 안양문, 무량수전이 놓여 있고, 이 축선을 비껴난 양측에는 1980년 보수정화 시 건축된 당우들이 있다.

(가) 천왕문

1977년 보수정화 시 일주문의 터로 밝혀진 자리에 조선시대 건축양식대로 새롭게 건축하였다.

(나) 범종각·안양문

명종 10년(1555년) 안양문이 화재로 소실되었다.⁴¹⁾ 범종각 중수기에 의하면, 조선 영조 22년(1747년) 화재시 안양문과 범종각 사이 건물에 피해를 입은 것을 그 이듬해에 중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⁴²⁾ 하지만 피해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지 않아 배치와 형상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추정하기는 어렵다.

(다) 무량수전

신라 문무왕 16년(676년) 의상국사가 창건한 후 고려 현종 7년(1016년) 원응국사가 중창하고 고려 공민왕 7년 왜화를 당한 것을 고려 우왕 2년(1376년) 원응국사가 다시 중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 말인 1377년 원응국사가 조사당을 증건하고 그 앞 해에 무량수전을 증건하였다는 기록이 발견됨으로써 초창 년대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목조가 구수법이 조사당보다 150년 정도 앞선 것으로, 중수 사실을 증건으로 잘 못 기록한 것으로

41) 김보현·배병선·박도화, 부석사, 대원사, 1997. 4. 30쪽

42) 문화재관리국, 영주부석사보수정화준공보고서, 1980, 17쪽

받아드려 13세기 초 건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3-3. 『순흥읍지』의 기록⁴³⁾과 비교

이 기록은 “무량수전 서쪽에 취원루가 있는데 섬돌이 깎아지른 듯이 높아 십여 장이나 된다. 남쪽으로는 여러 산들이 300여리 정도나 눈 아래로 내려다보인다. 취원루 북쪽에 장항대, 금당 동쪽에 상승당, 금당중정에 광명대, 그 앞에는 안양문이 있다. 안양문 앞에 범당이 있는데 왼쪽이 선당이고 오른쪽이 승당이다. 그 앞으로는 종각이 있는데 넓게 탁 트여 시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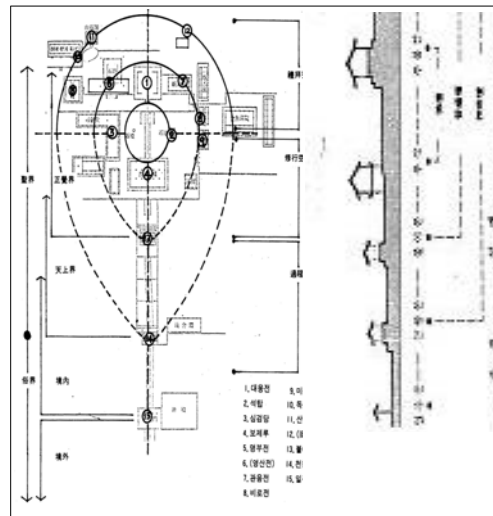
〈그림 2〉 부석사 스케치
(자료 : 겸재의 교남명승첩)

종각 아래에 또 대여섯 개의 당과 실이 있고,

43) 문화재관리국, 앞의 보고서, 105~106쪽
『순흥읍지』 佛宇浮石寺條에는“…〈前略〉…金堂西有聚遠樓 石砌如削高十餘丈 南望群山 皆在眼低 目力所及可矚三百里 樓北有藏香臺 金堂東有上僧堂 金堂中庭有光明臺 其前有安養門 門前有法堂 堂左爲禪堂 右爲僧堂 前有鐘閣 亦寬敞閣下 又有五六堂室 有廻轉門 曹溪門 比前有太砌高 四五丈 延裝百餘步 麗巖巨石 疊累如削橫亘 作培全輪一寺於 其上鬼役天成亦一壯視 又其下數十步許有一柱門 又其下一里許有影池 寺之樓閣盡倒影於池面…〈下略〉”

또 회전문과 조계문도 있다. 이 문 앞에는 높이가 4~5장이고 다듬은 큰 돌로 칩칩히 쌓은 백여 보 길이나 되는 큰 섬돌이 깎아지르듯이 가로 지른다. 섬돌 위 담 너머로 한 무리의 절이 쏟아질듯 서 있는 것이 또한 장관이다. 또 그 수십 보 아래에 일주문이 있고, 또 그 일리쯤 아래에 영지가 있어 절의 누(樓)와 각(閣)들이 모두 연못에 거꾸로 비치고 있다”라고 해석된다.

이 기록을 현황과 비교해 보면, 무량수전과 그 앞의 안양루와 큰 석단, 그 앞의 범종각, 그 아래 큰 석단, 그 아래 일주문 등이 일치한다.⁴⁴⁾ 더욱이 조계문 밑에 큰 석단이 있다는 것은 산지가람의 배치로 보아 지형여건상 거의 확실히 맞아지고 있다.⁴⁵⁾



〈그림 3〉 불교적 의미의 공간구분
(자료 : 김봉렬, 앞 논문, 76쪽, 164~165쪽)

3-4. 불교적 의미의 구분법과 비교

『순흥읍지』의 기록 중 안양문 앞의 큰 석단과 조계문지 앞의 큰 석단에 의해 공간이 분할되는 것은 불교적 의미에서의 구분법을 적

44)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안양루 앞 왼편의 선당과 범종각의 위치를 잘못 판단하였다.

45) 문화재관리국, 앞의 보고서, 106쪽

용하였을 때 현황과 거의 확실히 맞아지고 있다. 즉 불교적 의미에서는 일주문을 기준으로 그 아래를 경외로, 그 위를 경내로 구분한다. 또 일주문부터 조계문이 있었던 큰 석단까지를 계단지 못한 속계로, 조계문 이상을 성계(천상계)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일주문에서 조계문까지를 과정공간으로, 조계문을 지나 중심공간인 안양문 큰 석단 아래마당까지를 수행공간으로, 큰 석단 이상을 예배공간으로 구분⁴⁶⁾한다.

3-5. 석단과 사상관련 선행연구의 개관

지금까지 부석사의 연구로 찾아진 공간구성의 실마리는 사찰의 공간구조를 '정토신앙'에 근거하거나 '화엄사상'과 관련시키는 등 주로 교리에 따라 해석한 것이 많다.

이들 선행연구 중 본 연구의 핵심인 석단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석단을 적극적인 구성요소로 삼고 있다⁴⁷⁾.

부석사의 석단은 크게 삼단계(三段階)로 구성되며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석단을 쌓는 기본적인 동기는 경사 지형에 전각을 건축하기 위한 터를 마련하기 때문이지만, 그것의 건축적인 의미에 대한 선행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내용들이 있다.

1) 삼배구품설⁴⁸⁾

크게는 3단이지만 이것을 다시 9단으로 나누어 정토경의 삼배구품 왕생의 교리를 표현한다. 안양루의 안양이란 극락의 또 다른 이름으로 지상에 서방정토를 옮겨 놓은 것으로 부석사는 서방극락에 이르는 길목과 같다는 내용이다.

2) 3개의 단과 9개의 계단⁴⁹⁾

부석사의 입구에서 안양문까지 거의가 9단의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계단의 수가 흥미롭다.⁵⁰⁾ 또 석축 그대로가 삼배신앙으로 상·중·하로 구분되고 삼배가 끝나는 정상에 무량수전이 건축되어 있고 안양문에서 내려다보면 구품신앙의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들고 있다.

3) 9개의 석단과 3개의 누각⁵¹⁾

10개의 석단으로 터를 만들고 중문지를 지나 무량수전에 이르기까지 9단의 변화를 겪는다. 또 9개의 단은 다시 3개씩 묶어 각 영역사이에 중문(터)과 범종각·안양문을 세워 분절된다. 이러한 단의 구성은 경전에 나오는 삼배왕생이나 삼품삼생설의 구성과 일치한다는 해석이다.

위 1)에서 3)까지의 해석에서 대지를 크게 3단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9단으로 나누는 방법은 석단의 현황을 적용시켰을 때 모순이 발생한다.

즉 부석사 석단의 현황 중 성계영역을 가로질러 쌓아진 석단은 모두 8개로, 이들 중 큰 석단은 안양문 앞과 조계문 터 앞 2개이고, 중간 석단은 범종각 위 석단이며 나머지는 대체로 낮은 석단이다. 따라서 이들 세 개의 석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석단의 수는 아래 큰 석단으로부터 4개·2개·2개가 되어 세 개로는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절점에 해당되는 조계문(터)과 회전문·범종각·안양문 또한 이렇게 나누어진 터 위에 세워지지 않게 된다.

4) 34품·8회·10지의 단계⁵²⁾

현재의 천왕문에서 무량수전에 이르기까지 석축에 의한 10개의 터는 『화엄경』에 나타난 초지로부터 제10지까지로 34품·8회·10지의

46) 김봉렬, 앞의 논문, 76쪽. 164~165쪽

47) 한국불교연구원, 한국의 사찰 9 부석사, 일지사, 1976. 61쪽

48) 한국불교연구원, 앞의 책 57, 62~64쪽, 크게는 모두 3단으로 나뉘어 졌지만 다시 9단으로 나뉘어져 정토경의 삼배 구품왕생의 교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49) 김지건, 신라화엄의 계보와 사상, 한국화엄사상사 연구, 불교사학회 편, 민족사, 1988. 99~102쪽

50) 계단수가 다른 것을 후인들의 보수 때문으로 판단한 것은 보수정화보고서와 매우 다른 결론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1) 김봉렬, 앞의 논문, 76~77쪽

52) 김보현·배병선·박도화, 앞의 책. 69~71쪽

단계를 상징한다는 해석이다.

위 해석에서는 각 석단들과 『화엄경』·「십지품」과 서로 대응되거나 일치하는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왕문으로부터 큰 석단까지의 사이공간에 대한 해석이 없고, 또 큰 석단부터는 천계 세계로 판단하였으나 그 헤아리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범종각이 있는 석단과 그 위단을 낙변화천의 제6지와 타화자재천의 제7지라고 해석함으로써 안양문 아래 공간의 성격을 바꾸어 버렸다. 왜냐하면 “2-1·3)·각주 11)”에서 밝혔듯이, 『60화엄』에는 「십정품」이 없으므로 「십지품」 다음에 나오는 여러 품이 모두 「십지품」의 설법장소와 동일하다고 보아 ‘타화자재천궁’이 그 설처(說處)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를 석단에 적용하여 해석할 경우 맞지 않는다. 따라서 『80화엄』을 적용시켜보면, 여기에는 「십정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 품은 설처를 「십정품」과 동일하게 ‘보광법당’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

(2) 배치의 축이 굴절되어 있다.

안양문 앞 석단에서 배치축이 굴절된 이유를 ① 지리적인 입장과와의 관련성⁵³⁾으로, ② 대지의 지형적인 조건과 풍수사상·창건 당시의 불교사상과의 관련성⁵⁴⁾으로, ③ 진리를 깨우치는 마지막 순간의 희열을 건축적 언어를 통해 표현하려는 의도⁵⁵⁾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해석 중 ①의 경우 부석사는 도솔천의 미륵정토에서 극락세계의 미타정토로 전개되는 구조로, 안양문의 위단은 전면에 있는 안산이 안대이자 배치축이고, 아래 단은 멀리 도솔봉과 연화봉이 배치축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의 경우는 진로축의 대지 등고선과 흐름이 무량수전이 놓인 터와 서로 상이함으로 필연적인 현상이며, 장풍득수를 고려한 은폐될 수 있는 산을 무량수전 앞으로 선택하여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적 조건을 토대로 풍수적 사고를 적용시킨 결과라고 설명한다.

또 불교사상과의 관련은 본당이 대응전이 아닌 무량수전이고 본존이 아미타불인 점, 전각의 명칭이 안양문·범종각인 점 등 사상적 요인이 반영된 의도적인 구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③의 경우는 배치를 전환함으로써 지각되는 장면의 시각적 효과라고 해석하는 등 그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이처럼 각 구성요소들의 독특한 배열과 상호관계를 여러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공유하는 요소들의 관계를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매우 타당성 있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3) 큰 석단으로부터 범종루까지의 터는 『화엄경』 중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종교체험을 통해 보았던 경전을 설법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졌다⁵⁶⁾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은 『순흥읍지』의 5·6 당과 실이 있었다는 기록과 불교적 의미의 공간 구분과 비교했을 때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화엄경』과 「십지품」, 『일승법계도』의 내용을 통한 화엄종의 근본 사상은 보살의 수행 과정을 나타냄에 있다⁵⁷⁾는 해석이다.

이 해석에서는 보살행의 과정이 석축과 루, 전각들로 유형화하고 또 석단에 따라 각 단계를 나누고는 있지만 범종각이나 회전문이 있었던 터⁵⁸⁾ 등의 해석에서는 그 적용기준이 모호하다.

54) 이원교, 진통건축의 배치에 대한 지리체계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론, 1993. 128~131쪽

54) 진경돈, 부석사의 입지선정배경과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론, 1988. 99~114쪽

55) 홍재동, 앞의 논문, 106쪽

56) 홍재동, 앞의 논문, 105~107쪽

57) 조남두, 화엄경을 통해 본 화엄사찰의 배치형식 연구, 1998. 동국대 석론, 65쪽

58) 조남두, 앞의 논문, 64쪽 표에서 현전지를 회전문 터로, 범종각을 원형지로 판단하고 있다.

3-6. 석단과 「십지품」 과의 관계분석

(1) 첫 번째 석단으로부터 세 번째 석단까지는 속계이자 과정적 공간이며, 『화엄경』이 설법된 지상세계를 상징한다.

이곳에서 『화엄경』·「십지품」의 해석과 공간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응되거나 일치하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1) 첫 번째 석단에 의한 터는 제1회 모임인 ‘보리도량회’의 장소로 「십지품」 중 제1지인 ‘환희지’에 대응되는 전환점이다.

현재 천왕문에 이르기 전까지는 시간을 의미한다. 원래 이곳은 일주문의 터였으므로 수미산 남쪽의 섬부주(瞻部洲)에 해당된다. 따라서 보리수 아래에 있는 석존 성도의 장소인 적멸도량인 썸이다. 그러므로 「십지품」 중 보살이 부처님의 경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새로운 종교적 체험⁵⁹⁾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성불이 확정된 보살이 궁극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부처님의 경지를 바라볼 때 “온 몸과 마음이 갑자기 환희로 가득하다”는 제1의 경지인 ‘환희지’로 보살에게 환희를 가득 채워주는 전환점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이 문을 오르면서부터 보살은 이 세계를 넘어버린 꼴이 되니, 현실을 초월하는 큰 전환을 맞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2) 두 번째 석단⁶⁰⁾ 으로부터 네 번째 석단까지의 사이공간은 천계세계에서 제외된 「정행」의 공간으로 불교적 의미의 구분인 속계와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제2회 모임인 ‘보광당법회’의 장소로 「십지품」 중 제2지인 ‘이구지’에 대응된다.

59) 玉城康四郎 지음/이원섭 옮김, 화엄경, 150쪽에는 “보살이 이제껏 여러 가지 형태로 실행해 오던 보시·지계·인욕 등의 형태와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인간 자체의 근본 체험”이라 설명하고 있다.

60) 이 석단은 부석사보수정화준공보고서 내용으로 판단해 불 때 연구를 행할 석단의 성격을 가졌다고 하기 보다는 단지 경사면의 포석들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십지품」을 헤아리는 석단의 수에서는 제외하였다.

환희심을 충분히 완성한 보살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 제2의 경지인 ‘이구지’를 바라면서 인간이 행해야 되는 도덕의 기본적인 훈련, 즉 자기 마음을 무엇이나 정직하게 관찰하고 판단하게끔 여러 가지 각도로 훈련하게 된다. 바닥이 24°의 경사면이고 거칠 돌로 마감한 것은 누구나 행하는 일상적인 훈련에 적합한 공간구성방법이다.

경사로의 끝자락에 돌출되게 놓인 세 번째 석단은 네 번째 큰 석단과 구조적으로 무관하며 형태 또한 판이하다. 따라서 [표 2]에서 살펴보았듯이 천계 공간구조에서 제외된 「정행」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살도의 기점이자 ‘심신’을 설한 지상 세계의 제2회 모임인 ‘보광당법회’에 대응된다.

(2) 네 번째 큰 석단으로부터 범종루가 있는 일곱 번째 석단까지는 체계적 수행의 장소이자 『화엄경』이 설법된 천계세계이며, 불교적 의미의 성계이자 과정적 공간을 상징한다.

네 번째 큰 석단 위로는 하늘만 보인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거나, 새로운 큰 전환을 암시하거나, 종교적인 감흥을 유발하기에 적합한 구성이다.⁶¹⁾ 왜냐하면 「십지품」의 제3지인 ‘발광지’의 내용 중 보살이 “부처님이 보살행에 대해 설하신 아직 들은 바 없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비록 삼천大千 세계에 가득 타오르는 불에라도 뛰어들어 그 고통을 참아 내겠다”⁶²⁾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 석단 위는 지상 세계에서 벗어난 수미산 꼭대기로 상징되어 제석천의 거처인 천계 세계가 된다.⁶³⁾

더욱이 네 번째 석단에서 여섯 번째 석단까지는 각 석단들의 높이가 비교적 낮다. 따라서

61) 홍재동, 앞 논문, 68쪽

62) 玉城康四郎 지음/이원섭 옮김, 앞의 책, 176쪽

63) 鎌田茂雄 지음/장휘옥 옮김, 앞의 책, 133쪽

이들 높이 모두는 보살의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영역처럼 한 눈에 지각된다. 따라서 “2-2. 『화엄경』의 구조체계”처럼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유기적 구성체계로 서로가 대응되기에 적합하다. 즉 천계세계의 공간구조와 같이 마치 하나의 단계가 온갖 단계 모두를 포함할 수 있고, 수행의 각 단계가 종적으로 계열화되어 일순간의 수행적 행위 하나에서 전체 해탈의 삶을 직접 포섭할 수 있는 구조로, 소위 불교의 세계관에서 말하는 “낮은 천계에서 점차 높은 천계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구성”인 셈이다.

이곳에서의 『화엄경』·「십지품」의 해석과 공간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응되거나 일치하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1) 네 번째 석단에 의한 터는 제3회 모임인 ‘도리천회’의 장소로 「십지품」 중 제3지인 ‘발광지’에 대응된다.

보살은 제2지에서 닦은 기초훈련에 의해 점차 청정해진 마음을 다시 한층 굳게 견지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실천하며 나아가다 지금까지의 공간구성 수법과는 매우 다른 공간을 만나게 된다. 이곳은 보살이 자리와 이타 두 가지 실천을 거듭할 때 자기 속으로부터 지혜의 광명이 생겨나게 되는 곳이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세존이 ‘보광당법회’가 끝난 후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수미산꼭대기로 오르시어 제석궁으로 향하였다”는 사실⁶⁴과 세존이 이곳에서 설한 ‘주(住)와도 잘 대응되며, 또 불교적 의미의 공간구분과도 일치된다. 게다가 『순홍읍지』와 ‘교남명승첩’에 기록된 조계문⁶⁵은 천계세계의 진입구에 꼭

64) 鎌田茂雄 지음/장휘옥 옮김, 앞의 책, 133쪽, 범장은 이것을 『탐현기』 권5에서 “動과 靜과 無碍로서 가지 않으면서도 또한 가기 때문에 昇이라 한다”라고 해석하였다.

65) 문화재관리국, 앞의 보고서, 106쪽에 의하면, 문헌상으로나 현재 가람의 전체 배치나, 시각적인 배치로 보더라도 장엄한 대 석단 위에 건물 없이 넓은 허공만 보임

놓여야만 되는 공간임으로 이 문 또한 모든 사실과 잘 대응된다.

2) 다섯 번째 석단에 의한 터는 제4회 모임인 ‘야마천회’의 장소로 「십지품」 중 제4지인 ‘염혜지’에 대응된다.

보살이 제3지에서 닦은 빛이 더욱 빛나서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는 곳이다. 이 경지에서 보살에게는 보살행 중 가장 기본적인 ‘행(行)’을 지속하는 일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⁶⁶ 따라서 이러한 수행내용은 세존이 이곳 ‘야마천궁회’에서 설한 ‘행’과도 잘 대응된다.

3) 여섯 번째 석단에 의한 터는 제5회 모임인 ‘도솔천회’의 장소로 「십지품」 중 제5지인 ‘난승지’에 대응된다. 뿐만 아니라 회전문의 장소이기도 하다.

세존은 이곳 ‘도솔천회’에서 ‘회향(廻向)’을 설하였는데, 보살 역시 인격연마를 철저히 한 다음⁶⁷ 무수한 부처님을 예배하고 궁극의 깨달음에 모든 선⁶⁸을 잊지 않고 회향함으로써 서로 대응되는 공간이다. 그럼으로 이러한 수행단계는 범종각 아래에 회전문이 있었다는 『순홍읍지』의 기록을 뒤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단서가 된다.

4) 일곱 번째 석단에 의한 터는 제6회 모임인 ‘타화자재천회’의 장소로 「십지품」 중 제6지인 ‘현전지’에 대응된다. 그럼으로 체계적 수행의 정점이자 육계의 정점에 놓인 범종루는 공·무상·무원의 삼해탈문을 상징한다.

이로써 세존이 타화자재천에 이르러 ‘타화자재

은 짜임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인다.

66) 玉城康四郎 지음/이원섭 옮김, 앞의 책, 185쪽에서 이행을 신(信)·근(勤)·염(念)·정(定)·혜(慧)라 소개한다.

67) 본격적으로 진리 추구하고 사회 활동 등으로 보살 정신의 큰 포용력을 과시한다.

68)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가도록 하며, 아울러 그것 때문에 청정해지고 번뇌를 극복케 하여 드디어 궁극의 열반에 도달토록 원하는 것을 말한다.

천궁회'에서 '지(地)'를 설해서 보살도를 열어 보이자 보살은 대비심으로 현실을 깊이 관찰하고 또 숙고하여 "세계의 일체는 모두가 마음에서 말미암는다."는 사실에 눈뜨게 된다.⁶⁹⁾ 이후 보살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을 깨뜯을 것과 같은 밝은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자리행과 이타행을 지향해 온 보살 정신이 아무것도 도업매임 없이 크게 전환됨을 의미한다.

제6지인 '현전지'는 보살의 종교적 세계로, 그는 현실 속에서 사는 중생을 관찰함으로써 십이인연관을 거쳐 공 자체를 체득하게 되는 공해탈(空解脫)에 이르게 된다. 그럼으로써 보살에게는 무상(無相)해탈과 무원(無願)해탈문이 생겨 마침내 부처님의 지혜가 약속되는 전환을 맞게 된다.⁷⁰⁾

이러한 전환은 ① 범중루가 지금까지 전개된 체계적 수행의 정점이자 육계의 정점으로 천계 세계를 벗어나 부처님세계로 진입하는 초입에 놓여있는 문이라는 사실과, ② 지금까지 보살의 수행과정을 루 아래 건축공간 한정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원근효과로 나타내거나, 득도후의 새로운 세계를 수평그림들에 담아볼 수 있게 장치한 건축수법 등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5) 범중루의 수평그림들을 통해 투시도적으로 전개 되는 경관은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과 앞으로 다다르게 될 부처님 세계를 암시한다.

범중루 아래 여덟 번째 석단에서 돌출된 계단 앞에 서면 석단과 마루가 만드는 수평그림들 사이로 높은 석단 위에 놓여있는 무량수전과 안양루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관은 지금까지의 진입축보다 축을 달리하거나 꺾음으로써 사뭇 다르게 지각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임을 암시하

는 건축적인 수법이다.

6) 천계세계의 모임인 도리천회, 도솔천회, 아마천회, 타화자재천회 장소는 순흥읍지 불우부석사조 중 "종각 아래에 다섯 여섯 개의 당과 실이 있고" 라는 내용과 견제의 <그림 2> 와 대응된다.

(3) 여덟 번째 석단으로부터 무량수전이 있는 열한 번째 석단까지는 『화엄경』이 설법된 지상과 천상을 포함한 지상세계이자 불교적 의미의 예배공간을 상징한다.

이곳에서의 『화엄경』·「십지품」의 해석과 공간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응되거나 일치하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1) 여덟 번째 석단에 의한 터는 「십지품」 중 제7지인 '원행지'로 부처님 세계의 초입이자 해탈의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리듬 있게 전개되어온 석단보다 다소 높은 석단은 부처님의 세계로,⁷¹⁾ 보살은 보살행의 완성을 향하는 일에서 잠시라도 떠나는 일이 없는 부처님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⁷²⁾ 그런데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것은 보살이 제6지를 벗어나면서 해탈했기 때문이며, 제7지 '원행지'의 숫자 '7'과 대응⁷³⁾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6지까지와는 달리 보살은 보살행의 완성을 향하는 일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것에 의해 부처님과 동화할 수 있다.

2) 아홉 번째 석단에 의한 터는 「십지품」 중 제8지인 '부동지'로 보살의 인격형성에 마지막 전환점이자 제7회 모임인 '보광법당중회'의 장소로 순흥읍지 불우부석사조 중 "안양문 앞에 법당이 있는데 왼쪽이 선당 오른쪽이 승당이다" 라는 내용과 견제의 <그림 2> 와 대응된다.

71) 이곳은 제6지까지에서 이룬 보살행의 끝없는 전진이 가능한 곳이다.

72) 玉城康四郎 지음/이원섭 옮김, 앞의 책, 219쪽에는 그의 몸과 마음은 적멸에 들어갔음에도 무수한 부처님들을 예배하여 궁극의 깨달음에 선을 회향하면서 모든 가르침을 찰나찰나에 실현한다.

73) 불교에서는 '7'이란 숫자를 해탈수로 보기 때문이다.

69) 이런 바 '三界唯心'으로, 이 자각을 심화함으로써 삼계도 마음도 없어지고 공 자체에 몰입하게 되어 인생의 모든 것을 깨뜯는 듯한 투명한 지혜가 생겨나게 됨을 일컫는다.

70) 玉城康四郎 지음/이원섭 옮김, 앞의 책, 198쪽

지금까지 보살이 보살행을 행한 장소는 걸 무대요 부처님은 그 끝없는 막후에 계시니까, 사실상 이곳은 앞쪽의 보살과 뒤쪽의 부처님이 표리일체가 되는 곳이기도 하고, 보살이 자기를 잊고 부처님과 합치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살은 이 경지에서 보살 자신의 인격이 소멸하고 부처님 속에 동화되기 때문에⁷⁴⁾ 보살의 인격형성 면에서 본다면 그 최종 목표지가 되는 곳이다. 왜냐하면 보살이 저절로 이루는 지혜(無功用)는 개이성(個我性)의 마지막 한 방울로부터 떠나는 최종의 전환이요, 그것은 부처님들의 세계로 이끌려 들어가는 필연의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⁷⁵⁾ 따라서 제7지와 제8지는 형식상으로 구분만 되었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장소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8지는 『화엄경』의 제8회 설법인 ‘보광법당중회’의 장소가 된다.

보살이 부처님들의 세계로 이끌려 들어가 동화되는 필연적인 과정은 지금까지의 진입 축을 오른쪽으로 전이시키고, 또 이것을 다시 새롭게 전환하여 전개될 축선에 연계시키거나,⁷⁶⁾ 높게 쌓은 석단에 의해 다음 진행 단계로의 시선을 차단하여 암시하는 공간구성수법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더욱이 이러한 공간구성수법들은 “2-2 『화엄경』의 구조체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십지품」까지 전개된 수행체계를 다시 한 번 대비시키거나 다음 단계인 「이세간품」으로의 전환에도 합리적으로 대응된다.

3) 열 번째 석단에 의한 터는 「십지품」 중 제9지인 ‘선해지’로 『화엄경』의 제8회 ‘삼중

보광법당회’의 장소이다.

보살은 여래의 세계를 더 한층 깊이 있게 관찰·인식하면서 높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석단에 오르면 안양문에 도달하게 된다. 이 석단은 제9지인 ‘선해지’이자 제8회 ‘삼중보광법당회’가 열린 곳으로 부처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갈 때 필연적 도달점인 셈이다.⁷⁷⁾

4) 열 번째 석단 터에 놓인 안양문은 『화엄경』의 「이세간품」을 상징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곳에 건축된 안양문의 의미나 『화엄경』속의 「이세간품」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같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왜냐하면 안양은 극락의 다른 이름이므로 안양문은 극락 세계로 진입하는 문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높은 단을 쌓아 공간을 구성한 것은 “2-2. 『화엄경』의 구조체계”로 판단해 볼 때 천상세계에서 지상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지상이기 때문에 지상과 천상을 포함한 지상을 건축적인 공간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5) 열 번째와 열한 번째 석단의 축을 꺾은 것은 마지막 큰 전환을 상징한다.

이들 석단의 축은 두 개의 장방형 마당과 서쪽으로 수렴하는 두 개의 사다리꼴 마당에 의해 크게 전환된다. 따라서 범종각에서 바라볼 때는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아홉 번째 석단에서는 진행방향을 가로 막아 가장 오르기 어려운 코스로 새로운 세계를 암시하며, 또 기대감도 갖게 한다.

6) 열한 번째 석단에 의한 터는 「십지품」 중 제10지인 ‘법운지’에 대응된다.

밤낮을 하나같이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깊은 해탈에 이른 보살은 수평그림틀 속으로 전개되는 건축공간을 느끼면서 다음 단을

74) 玉城康四郎 지음/이원섭 옮김, 앞의 책, 224쪽에는 부처님들은 보살의 지혜를 칭찬한 다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자신들의 세계에까지 올라오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75) 玉城康四郎 지음/이원섭 옮김, 앞의 책, 225쪽

76) 조동일, 의식각성의 현장, 도서출판학고재, 2007. 46쪽에는 끈게 오르던 길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굽은 이유를 의상의 시를 인용하여 “끈게 나아가면 굽어야 한다. 길을 찾았다고 해서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안 된다. 그냥 가기만 하는 길은 담과 다를 바 없다. 방향을 바꾸는 비약이 있어야 담이 다시 길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77) 玉城康四郎 지음/이원섭 옮김, 앞의 책, 230~238쪽에는 보살은 세상의 온갖 것에 대해 지혜를 수련함으로써 중생 세계의 여러 사실을 그대로 인식한 다음 중생이 해탈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므로 보살은 수행자가 아니라 설법자가 되는 셈이다.

[표 4] 『80화엄』과 「십지품」의 관계 분석표

品數	構成	場所	說法會數	說法 內用	十地品과 의 관계	
(1) (2) (3) (4) (5) (6)	序 論	地 上	第1會 菩提道場會	仏의 依報 因果	第1地 歡喜地	
(7) (8) (9) (10) (11) (12)			第2會 普光法堂會	十信	第2地 離垢地	
(13) (14) (15) (16) (17) (18)	本 論	天 上	第3會 忉利天會	十住	第3地 發光地	
(19) (20) (21) (22)			第4會 夜摩天會	十行	第4地 焰慧地	
(23) (24) (25)			第5會 兜率天會	十廻向	第5地 難勝地	
(26)			第6會 他化自在 天會	十地	第6地 現前地	
(27) (28) (29)			地 上	第7會 普光法堂 重會	因圓 滿果	第7地 遠行地 第8地 不動地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38) (39)	結 論		第8會 三重普光 法堂會	普賢 大行	第9地 善慧地	
			第9會 逝多園林會	入法界 法門	第10地 法雲地	

오른다. 이곳은 화엄경의 구조체계로 판단해 볼 때 지상과 천상을 포함한 지상에 해당되는 곳으로, 석단을 마치 무대처럼 높게 쌓거나 돌출시켜 쌓고, 또 무량수전이 놓여 있어서 비로자나불이 있는 막 뒤 안쪽으로 상징된다.

7) 무량수전은 『화엄경』 중 제9회 ‘서다원림회’를 통해 「입법계품」이 설해진 부처님의 세계이다.

보살이 제9지에서 제10지에 들어가는 것을 관정지(灌頂地)⁷⁸⁾에 이룬다고 한다. 이때 무수한 삼매가 나타나, 보살은 이런 삼매에 자유로이 드나들게 된다. 거듭된 삼매 끝에 일체 중생은 세계가 크게 진동하면서 온갖 고뇌는 사라지고 광명으로 가득 찬 뒤 모든 부처들이 나타남을 보게 된다.

이곳은 지금까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보살의 수행체계 전체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장소로, 이와 같은 생명이 없는 아미타여래의 서방극락세계는 무량수전으로 상징된다.⁷⁹⁾

보살이 무량수전에 도달하면 공간 한정요소들의 짜임에 의한 원근효과와 단청으로 장엄된 불교회화 등의 지각을 통해 심신의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만을 얻게 된다. 이때 보살은 온갖 세계가 궁극의 지혜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식하게 된다.

앞서 “2-2. 『화엄경』의 구조체계”에서 살펴본 앓듯이 산뜻하게 짜여진 단계적 수행을 대신하여 여러 선지식을 등장시키고, 또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행을 단계적으로 진행시킨 사실 등은 가까이로부터 멀리까지 부감(俯瞰) 되고 있는 개체들과의 대응으로도 설명된다. 따라서 보살은 이들 각 개체들이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78) 관정이란 제왕이 되는 왕자에게 사대해(수미산 사방에 있는 바다)의 물을 머리에 붓는 의식으로, 여기에서는 보살이 제10지에 오르려 할 때 무수한 부처님들에 의해 지혜의 물이 그 머리에 부어짐을 뜻한다.

79) 鎌田茂雄 지음/장희옥 옮김, 앞의 책, 267쪽
무량전을 화엄경에 근거하여 7처8회전이라고도 부른다.

보고 마치 자신이 화엄세계의 중심에서 개체간의 통일을 이룬 영원한 진리의 세계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3-6. 분석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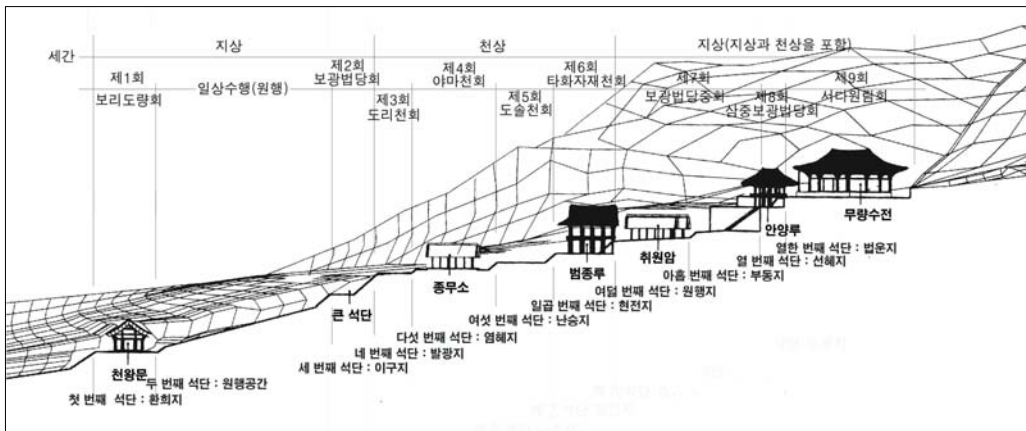
보살이 걷는 길은 길고도 긴 여정이다. 이때 보살이 딛고 넘어온 각 단계 단계는 그 하나하나가 바로 전환을 뜻한다.⁸⁰⁾ 즉, 보살에게는 실천하는 찰나찰나가 끊임없는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부석사의 외부공간 중 천왕문에서 무량수전까지 쌓아 만든 석단은 『화엄경』의 구조체계에 나타난 지상에서 천상, 다시 지상으로 이어지는 부처님의 설법 장소와 이를 듣기 위해 모인 회수 및 「십지품」의 각 단계를 상징한다. 더욱이 이들 석단은 그 높낮이와 경사각 등의 생김새를 통해 「십지품」에 기록된 크고 작은 전환들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전환들 중에서 비교적 큰 전환을 살

한 번, 천계세계에서의 수행이 끝난 자락, 즉 여덟 번째 석단에서 해탈하면서 한 번, 보살이 ‘제8부동지’에서 하늘높이 치솟아 가장 오르기 어려운 코스인 열 번째와 열한 번째 석단에서 또한 한 번, 도합 네 번이다.

이처럼 당시 건축가는 『화엄경』의 구조체계가 요구하는 건축적 원리를 지형의 해석을 통해 설정하고 석단을 그 구성요소로 채용한 다음 그 높낮이를 다양하게 하거나 축을 꺾어 변화를 주기도 하고, 또 여기에 섬세한 시각적 조작과 적절한 상세(Detail)를 덧붙여 공간과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각각과 그 위에 놓인 건물은 중층적인 성격을 띠도록 구성하여 매우 조직적인, 즉 ‘그물망의 그물코’와 같은 구조체계 속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림 4〉 각 석단과 『화엄경』 · 「십지품」과의 대응관계도

펴보면, 자리행과 이타행의 근거가 생겼던 ‘환희지’로 현재 천왕문이 있는 첫 번째 석단에서 한 번, 정행의 공간을 지나 불교의 세계관인 천계세계의 공간구조가 시작되는 네 번째 석단에서

80) 왜냐하면 보살이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건널 때 마다 그의 인격은 연마되고 지혜는 깊어지며, 또 행동반경은 커지고 세계관은 더욱 웅장해 지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화엄경』 구조체계의 핵심은 수행체계의 기본을 「십지품」에 두고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여 다루면서 서로 대응되게 구성한 것에 있다.

(1) 「십지품」 속에는 『화엄경』의 대략적인 줄거리가 담겨 있다. 그럼으로 「십지품」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화엄경』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과 같다.⁸¹⁾

(2) 『화엄경』은 3차원의 공간구조를 가졌는데, 이를 설법 장소와 관련시켰을 경우 육계 육천의 천계세계와 지상세계에 해당된다.

2) 『화엄경』·「십지품」의 내용을 부석사의 각 석단에 대응시켜 본 결과, (1) 현재 전각이 남아 있는 석단뿐만 아니라 전각이 없는 곳도 「십지품」에 내포된 의미와 잘 대응 되었다. (2) 석단의 높낮이에 의한 전환, 석단의 전환에 의한 축의 굴절 등도 형식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상징적 의미의 측면에서도 「십지품」의 내용과 잘 대응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석단에 의해 구성된 터는 『화엄경』의 설법장소와 모인 회수, 설법 내용 등과도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부석사의 외부공간은 『화엄경』·「십지품」의 내용과 설법회수와 장소 등을 구성요소로 삼아 이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건축공간을 구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화엄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수행체험을 얻기 위한 기본적인 상황설정을 함으로써 교리강학의 도량을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화엄경』의 무대인 연화장세계를 재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Dietrich Seckel·백승길 역, 불교미술, 열화당, 서울, 1985,
2. 平川彰·梶山雄一·高岐直道 지음/鄭舜日 옮김, 화엄사상, 경서원, 서울, 1988.

3. 鎌田茂雄 지음 / 한형조 옮김, 화엄의 사상, 고려원, 서울, 1988.
4. 玉城康四郎, 永遠の 世界觀·華嚴經, 筑摩書房, 동경, 1965.
5. 玉城康四郎 지음 / 이원섭 옮김, 화엄경, 현암사, 서울, 1991.
6. 末網怒一 지음 / 이기영 옮김, 화엄경의 세계, 한국불교연구원, 서울, 1992.
7. 鎌田茂雄 지음 / 장휘옥 옮김, 화엄경 이야기, 장승, 서울, 1996.
8. 木村清孝 지음 / 김천학·김경남 옮김, 화엄경을 읽는다, 불교시대사, 서울, 2002.
9. 문화재관리국, 영주부석사보수정화준공보고서, 서울, 1980. 12.
10. 김보현·배병선·박도화, 부석사, 빛깔 있는 책들, 대원사, 서울, 1997.
11. 조동일, 의식각성의 현장, 도서출판학고재, 서울, 2007.
12. 金奉烈,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고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 박론, 1989.
13. 金奉烈, 한국건축의 계획과정 : 부석사, 이상건축, 11월호, 부산, 1995.
14. 金相鉉, 신라화엄사상사연구, 동국대 박론, 1989.
15. 李種益, 한국불교사상사 위에서 본 均如法界圖記 고찰, 불교학보 제17집
16. 李孝杰, 화엄경의 성립배경과 구조체계, 고려대 박론, 1991.
17. 趙南村, 화엄경을 통해 본 화엄사찰의 배치형식 연구 -화엄십찰을 중심으로-, 1998. 동국대 석론,
18. 陳景敦, 부석사의 입지선정배경과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론, 1988.
19. 洪宰東, 부석사의 공간구성 연구, 1998. 울산대 박론

81) 이러한 사실은 『화엄경』 전체를 범성이라 하고 이를 ‘행’이란 말로 표현한 의상 사상의 핵심과도 일치한다. 여기서 ‘행’은 「십지품」에 바탕을 둔 수행체계로, 이러한 사실은 「십지품」만으로도 그 자체 구조가 이와 닮은 『화엄경』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접수(2009. 12. 1)
수정(1차: 2010. 3. 24, 2차: 2010. 4. 12)
게재확정(2010. 4. 13)

A Study on Stone Platforms of the Buseoksa Temple

- In Relations to the 『Hwaeomgyeong』 and 『Sipjipum』 -

Hong, Jae Dong

(Hongwon Architect's Office)

Lim, Chung Sin

(Honorary Professor, College of Architecture, Ulsan Univ.)

Abstract

1) The structural system of 『Hwaeomgyeong』 has its core in the fact it deals with certain themes repeatedly on the basis of 『Sipjipum』 as a system of discipline.(The key of Euisang's ideas lay in referring to the whole 『Hwaeomgyeong』 as Beopseong and expressing it with the term, 'Haeng'. Here 'Haeng' is a system of discipline based on 『Sipjipum』 . This indicates that 『Hwaeomgyeong』 can be fully represented just by 『Sipjipum』 because the twos are structurally similar)

(1) In 『Sipjipum』 , a summary of 『Hwaeomgyeong』 is contained. Thus descriptions of 『Sipjipum』 may be like those of 『Hwaeomgyeong』 .

(2) 『Hwaeomgyeong』 had a three-dimensional spatial structure which corresponds with the Heaven of Yok Gye Yuk Cheon and the Earth, when associated with places of preaching Buddhist sermons.

2) This researcher investigated stone platforms of the Buseoksa Temple with references to 『Hwaeomgyeong』 and 『Sipjipum』 .

1) All the platforms, whether their building is still remained on them or not, comply better with implications of 『Sipjipum』 . 2) Different heights of the stone platforms and the axial refraction of the platforms brought by their shape changes all imply variations in discipline levels described in 『Sipjipum』 , in terms of form and symbolic implication. Sites which mainly compose the stone platforms also comply with descriptions contained in 『Hwaeomgyeong』 regarding the place, frequency and contents of preaching Buddhist sermons.

In conclusion, the outside of the Buseoksa Temple is composed of architectural spaces for which contents of 『Hwaeomgyeong』 and 『Sipjipum』 and the frequency and place of preaching Buddhist sermons are fully considered and comprehended.

keywords : Hwaeomgyeong, Sipjipum, the Buseoksa Temple, Stone Platform
